民心 잃고 黨心 균열 … 휘청이는 민주

한명숙 리더십에 한계 곳곳 상처·후유증

"최악의 공천" 비난 … 총선승리 장담 못해

민주통합당이 21일 4·11총선 공천장을 수여하며 사실상 공천을 마무리했으나 공천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을 노출, 공천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잇단 실정과 부패 사건으로 완승을 기대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민심을 잃으면서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공천=민주당의 이번 공천을 '최악의 공천'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분위기다. 부패전력자에 대한 심판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됐고 선정된 전략공천지역은 특정 대선후보 측 인사들이 출마한 지역에 집중됐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라는 명분으로 특정 학맥 심기를 시도했으며 특정 계보 인사들은 면접과 서류 심사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친노·이화여대·486을 묶어서 '노이사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호남지역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해 공정성을 의심받았으며, 광주 서구갑의 경우는 한달 가까이 공천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해 후보는 물론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했다. 지역구 낙천자가 아무런 원칙 없이 비례대표로 차출되는가 하면 그마저도 후보들의 거부나 지도부의 이견으로 무산되는 등 '널뛰기 공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같은 공천 결과,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으며 당 지도부조차 이들의 무소속 행을 막을 명분조차 없는 상황이다.

◇당 내부의 균열=잇단 공천 잡음은 당내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이날 공천에 불만을 품고 전격 사퇴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공천기준이라는 것이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부분도 있었다"며 "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대표도 최근 "요새 이런 저런 공천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공천 과정에서 국민을 보고 하지 않고 자기를 보고 하기 때문"이라며 "나를 챙기면 남들이 욕하는 것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풀이하려고 총선 승리하려는 것 아니다"며 공천에 임하는 일부 당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공천의 핵심은 잣대가 하나여야 하는데 자기 편 한테는 잣대가 구부러지고, 미운 놈 한테는 잣대를 꼿꼿이 세우고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한 바 있다.

공천에 탈락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이날 "국민적 기대와 염원을 송두리째 내던지고 전부 사리사욕에 어두워 (공천을) 해왔다"며 당 지도부의 무원칙한 공천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리더십 한계 보인 한명숙 대표=이에 한 대표는 이날 "공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한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당 내외로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낙마를 예상하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민주당 한 예비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한 대표는 아무런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한 대표를 지원했던 많은 민주당원들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당직자도 "한 대표가 당을 운영하면서 당내 주요 대권주자나 최고위원들과 긴밀한 소통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주 일부 세력들 하고만 소통하면서 당내 소외 세력이 크게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선 현수막 설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1일 나주시 금성동 옛 나주경찰서 건물에 선거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나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고흥·보성 '동원 경선' 수사

검찰, 선거인단 명부 확보

검찰이 민주통합당 고흥·보성 경선과정에서 불법 동원 경선 의혹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의 불법 동원 경선 의혹과 관련해 전날 고흥군 선관위로부터 민주당 고흥·보성 선거구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고흥군 선관위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경선 선거인단 명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남도 선관위는 이날 "최근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의혹에 대해 전날 오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관련 선거인단 명부 제출을 요구해 제출한 것"이라며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도 선관위는 "선거인단 명부 작성과 관리는 정당의 몫이어서 검찰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으나 영장을 발부받아 요구한 만큼 이에 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치러진 민주통합당 고흥·보성 선거구 경선에서는 김승남 예비후보가 장성민 예비후보를 물리쳤다. 이 과정에서 관광 버스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압수한 선거인 명단에 동원된 버스에 탄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검찰 '돈살포' 민주 무안 조직책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1일 민주통합당 무안지역 당원단합대회를 앞두고 조직책에게 돈을 살포한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순께 읍면 당원단합대회를 앞두고 인근 면 조직책 또 다른 김모씨에게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무안의 한 지역 협의회장인 김씨가 당시 수천만원을 인근지역 면 단위 조직책들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김씨에게 전달된 돈의 규모와 출처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이날 무안지역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진위 여부는 향후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민주통합당 무안지역 전 협의회장은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전달된 돈이 2000만원 안팎에 이르고 해당 지역구 A의원의 보좌관 B씨가 면 조직책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 듣거나 알고 있다"면서 자신도 1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여론 조작' 수렁에 빠진 진보

이정희 후보사퇴 거부

서울 관악 을 야권연대 단일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조작 파문을 일으킨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4·11 총선 출마의사를 재차 밝혔다.

하지만, 경선에서 패한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은 이 대표의 후보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트위터에 "좋지 못한 소식 죄송합니다. 책임진다는 것, 고심했습니다. 완전무결 순백으로 살고 싶은 생각 왜 없겠어요. 사퇴,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상처 입더라도 일어서려합니다. 야권연대 완성되고 승리하도록 헌신해 용서 구하겠습니다"라고 올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대표의 보좌관이 당원들에게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 재경선 거부방침을 밝히면서 이 대표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 대표는 여론조사조작 파문과 관련, "김 의원이 원할 경우 재경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죄를 지었으면 그에 걸맞은 법의 조치를 받아야지 무슨 재경선이냐. 재경선 운운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하는 것은 죄를 지어놓고 면죄부를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진보의 생명은 바로 도덕성이다. 이 후보는 관악구민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이 여론조사조작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 중원의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된 통합진보당 소속 한 후보의 성추행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문제가 드러난 후보들은 사퇴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제대로 순항하려면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일부 세력에 대해 당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누리 비례대표 안정권 전남출신 3명

지난 20일 발표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 안정권인 20번 이내에 전남 출신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주영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이 6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2번 김정록(6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과 8번 이상일(50)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각각 화순과 함평 출신이다.

함평 출신인 이 전 위원은 신민당과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함평·영광에서 3선을 한 이진연 전 의원의 아들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한 인사는 주 회장이 유일하고 김 회장과 이 논설위원은 지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데다 지역기여도도 낮아 '무늬만 호남'인사 배정이란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4년 전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결과 김장수(광주) 의원이 6번, 김소남(보성) 의원이 7번, 이정현(곡성)의원이 22번에 배정돼 광주·전남지역 출신 3명이 국회에 진출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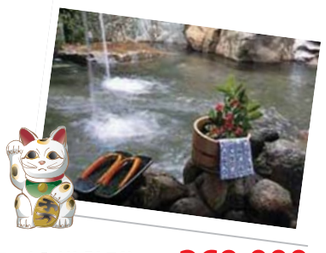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입이 쩍 벌어질 뉴스 2題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트렌블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 : 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선박 목포-제주도
품격 ₩139,000~ 실속 ₩99,000~
장흥-제주도
품격 ₩159,000~ 실속 ₩12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석식,수송비(광주-목포&장흥)
선박+항공 목포+무안공항 ₩12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석식,유류할증료(₩13,200)
항공 광주-제주도 ₩25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 석식
울릉도 2박 3일 ₩325,000~
1박 2일 ₩294,000~
특가 홍도,흑산도 1박 2일 ₩165,000~
출발일 : 3/27,3/31,4/7

카멜리아로 떠나는 온천 즐기기~~!!



4일 구중산 빌라형통나무콘도 (출발확정) ₩369,000
출발일 4/4, 22, 5/1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4일 일본 전통료칸 스지유 마을 온천 즐기기 ₩459,000
출발일 : 4/4, 22, 5/1, 9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4일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템보스 ₩519,000
출발일 : 4/4, 22, 5/9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4일 [품격]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899,000
출발일 : 4/24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무안에서 떠나는
방콕/파타야 3박5일(상해경유)
알뜰 ₩839,000~
실속 ₩789,000~
품격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팁

무안에서 떠나는
싱가폴/바탐 3박 5일 (상해경유)
3박5일 상해/싱가폴(1박)/바탐(2박) ₩1,149,000~
3박5일 상해/싱가폴(2박)/바탐(1박) ₩1,21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 개인경비, 인도네시아 입국비자(10$), 매너팁

무안에서 떠나는
홍콩/마카오/심천 (상해경유)
3박 4일 상해/홍콩/심천 ₩849,000~
3박 4일 상해/홍콩/마카오 ₩859,000~
4박 5일 상해/홍콩/심천/마카오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팁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5일 무안-북경 (※4/6-출발확정) ₩699,000~
4일 무안-북경/평요/면산 ₩869,000~
5일 무안-북경/평요/면산 ₩919,000~
4일 무안-상해/장가계 (※4/23-출발확정) ₩899,000~
불포함:개인경비,중국단체비자,기사&가이드팁
4일 무안-상해/장가계 (※4/30-출발확정) ₩1,020,000~
5일 무안-상해/장가계/주가각 (※5/17-출발확정) ₩1,150,000~
※ ALL포함, 무안출·도착기준

※ 당시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